

## 제3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2:1-5

이사야 2:1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로 시작함으로써 1장과 구분된 또 다른 메시지로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죄에 대한 고발과 이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진다. 이런 면에서 볼 때 2:1-5은 1장의 심판 메시지에 이어지는 회복의 메시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하나님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진멸(히:헤렘)이다. 하나님은 이 진멸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랑스런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신다.(1:18-19) 아울러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창기의 성읍이 된 예루살렘을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재건 하시려 한다.(1:25-27) 이제 2:1-5에서는 심판 후 회복될 의의 성읍으로 거듭나게 될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다 구체적으로 계시된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여 재건하는 때를 ‘말일’이라고 말한다.

다음 칼럼을 읽고 2:2 ‘말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말하는 지 묵상해보자.

이사야가 말하는 말일은 하나님과 분리된 유다가 심판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 만물이 회복되는 때를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말일은 심판을 통해서 유다의 부정함이 제거된 후 임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혼인잔치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두 가지 상징으로 묘사된다(계 19:7-8; 21:2-4). 그런데 두 상징으로 묘사되는 완전한 구원은 즉시 성취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혼인잔치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표상되는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한 지상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1장-3장)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엄중하고 잔혹한 심판을 지상에 집행하시는데 불완전한 지상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며 그 부정함을 제거받으며 점차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게 된다.(4장-20장) 그리고 마침내 지상교회는 거룩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 때 하늘에서 새예루살렘이 임한다(19, 21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존재로 거하시는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22장).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나라는 잔혹한 영화의 해피엔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재앙과 폭력, 증오와 파괴, 거룩한 심판이 임한 후에 성취된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심판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공의가 성취되며,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때에 실현되는 나라이다.(요 16:8-11).

그렇다.

성경이 말하는 ‘말일’은 신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부정함이 제거되고 하나님께 용납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만물을 다스리는 때를 말한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수도사인 “안셀름 그뤼어”은 그의 책 “구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피안(彼岸)에 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인식의 별들이 빛을 잃어야 한다. 하나님의 빛이 선명하게 발하기 위해서는 해와 달이 어두워져야 한다. 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것이 깨져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 화목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고, 다음은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들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는 유다를 위협하는 앗수르에 임하고, 그 다음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임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며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

②.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한 산을 지목하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한다. 성경에서 시온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의 솔론몬 성전을 지목할 때 사용되나,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관계를 회복한 공동체를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2장에서 시온은 후자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음 칼럼을 읽고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산 시온이 어떤 산을 말하는 지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이사야는 말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구원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선포해야 할 시온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 이사야가 계시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달하는 하늘의 시온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즉 시온은 창세전 성자가 성부가 함께 한 영원의 세계를 말한다. 갇힌 자에서 놓임 받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에게 해방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의 세계에 이른 자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히 12:22-24).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믿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하 한 것은 바로 영원한 시온, 곧 창세전 그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

신자가 영원의 세계를 누리게 되면 신자의 인격은 그의 존재이신 영원의 하나님과 잇대어지게 되고, 영원의 세계를 통해 유한한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며 더 이상 보이는 것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약속된 영생의 삶이다.

그렇다.

신자가 하나님의 영원 안에 거할 때 그의 보이는 것으로 인한 탄식은 영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

③. 이사야는 2장 3절에서 열방이 시온산을 향해 몰려와 구원받는 환상을 말한다. 열방의 백성들이 시온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근거는 그들이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본 열방이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다.

마가복음 1:22-28을 읽고 이사야가 본 시온의 환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는지 묵상해보자.

마가복음 1장 22절에 나오는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는 '에크'(~으로부터)와 '에이미'(나는 나다)의 결합어이다. 이것은 영원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의역할 수 있다. 예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땅에 속한 것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 등 율법학자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말씀이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말씀은 악의 세력들을 제압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시위한다.

이를 보고 무리들은 “이는 어찌이냐?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하며 놀라며 이를 사방에 전하게 된다.

④. 이어 이사야는 2장 4절에서 시온에 임하게 될 완전한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에 의해 주어지는 시대의 평화가 아니다. 이러한 평화는 거짓 평화이며 허상임을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진정하고 확고한 평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요 14:6).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결과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이사야 32:17을 읽고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평화를 말하는 지 묵상해보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사 32:17)

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실제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자신이 평화를 누리며,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게 된다. 이사야는 말일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계시한 후, 유다백성들을 시온으로 초대하며 "(시온으로)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시온의 빛)에 행하자"라고 외친다.

사도요한은 요한복음 서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의 빛'으로 계시하고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취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1:4-5)

여기 '깨닫다'의 헬라어 '카타람바네인'의 원뜻은 '이기다, 잡다'이다. 5절을 직역하면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 빛을 끄지도 못한다가 된다. 세상, 곧 어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해하지 못한다. 신앙 생활을 해도 창세전 진리, 그 말씀을 알기까지 유리방황하며 그 영혼이 피곤하며 거할 곳을 찾지 못한다. 그 빛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비추어진다(고전 2:10).

신자로서 어떻게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지 하나님께 물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